1. **시작**

지극히 평범하고 다른 날과 다름없는 학교생활 보내던 중

어느 날 반에 여자애 한 명이 전학을 왔다.

첫인상은 단발머리에 눈 밑에 흔히 미인 점이라 불리는 점이 눈에 띠었다. (백설공주?)

그녀의 자기소개에 모든 남학생들은 환호를 지르며 그녀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난 그저 반에서 평범한 아이이니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새로운 전학생이 오는 해프닝이 끝나고 곧 바로 수업이 시작하였다.

지겨운 수업이 진행되었고 무심코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리에 앉은 그녀의 옆모습을 보며 **차가워 보이지만 아름다운 외모**에 다시 한번 놀라고   
매혹이 되어 자연스럽게 쳐 다 보게 되었다.

그 아이도 나의 시선을 느낀 것인지 나를 한번 보더니 이런 시선이 익숙하다는 듯 다시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 선생님을 주시하였다.

모든 수업이 끝이 났고 이번 주에 주번을 담당하고 있는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교실의 문단속을 하기 위해 뒷문을 잠그고 앞 문으로 향해 가려는 순간 바닥에 허름한 열쇠가 보인다.

누군가 소중한 물건을 지키기 위해 잠가 놓은 열쇠이지만 부주의로 이렇게 땅 바닥 신세를 지고 있는 열쇠를 보며 이 열쇠를 애타게 찾고 있을 그 누군가를 위해 열쇠를 주워 주머니에 넣는다.

* 열쇠 획득

다음 날도 주번을 수행하기 위해 일찍 알람 소리를 듣고 침대에서 일어나 학교에 갈 준비를 마친 뒤 이른 아침 집을 나섰다.

학교로 가는 사거리에서 어제 전학을 온 여자 아이가 때 마침 뒤에서 나와 같이 등굣길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인 주인공은 그 아이보다 빠른 걸음으로 티가 나지 않게 재빨리 학교로 도착하여 교실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은근히 그녀가 오기를 기다리며 주번 활동을 하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교실에 도착하였고 그녀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서랍을 뒤지더니 많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한 듯 한숨을 쉬더니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나며, 창문 앞에서 눈치를 보며 자신을 쳐다보던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차가운 말투로): 야, 여기 화장실이 어디야**

그녀와 안면식이 없던 나는 그녀의 외모만큼 차가운 말투에 당황하며 화장실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차갑게 대하는 태도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무언가 떨리는 불안감이 느껴졌다.

잠시 후 교실에 돌아온 그녀는 다시한번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며 무엇을 찾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녀에게 다가가

**나(친절한 말투로): 아까 전부터 뭘 찾고 있는 거 같은데 뭘 찾고 있어?**

친절한 나의 태도와는 다르게 그 아이는 짜증난다는 말투로

**???(왕짜증): 아니, 그리고 딱히 도움은 필요 없어 신경 쓰지 말고 너 할 일이나 해**

그녀의 재수없는 태도에 나는 어이가 없다는 듯한 콧방귀를 뀌며 씬 종료

그녀의 어이없는 태도에 나는 수업시간 내내 그 생각을 하며 무심히 어제 주운 열쇠를 꺼내어 혼자 공중에 던지고 받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다시 내 친절한 태도에 반해 괘씸한 그녀의 태도를 생각하며 그녀 쪽을 쳐다보는 순간

동그랗게 뜬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녀를 볼 수 있었고, 알 수는 없지만 입모양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었다.

1. **종료**

이제 플롯만 적어야지 ㅎ;;

1. 그 아이는 쉬는 시간에 나에게 찾아와

???(차분하게 침착한 목소리로): 방금 전에 물건 좀 보여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던지고 놀던 열쇠는 반의 열쇠 키였다.

반 열쇠를 그녀에게 보여주자 그녀는 뒤돌아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1. 종례 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제 청소하다 주운 열쇠를 주고  
   그녀의 호감도를 얻어 냄
2. 다음 날 그녀와 인사하는 남주를 보고 주변 남자 아이들의 시기와 질투의 행동들
3. 이런 시기와 질투 속 특별해진 느낌을 느끼며 뿌듯하는 남주
4. 여주와 호감도를 쌓았으나 여주에게 실망을 주고 여주가 화를 내는 사건이 발생
5. 다시 처음과 같은 냉랭하고 쌀쌀맞은 관계로 복귀
6. 남주는 여주의 마음을 다시 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행사
7. 여주가 화가 난 이유를 뒤 늦게 알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말하며 여주에게 다시한번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8.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어색한 관계 등극
9. 우연히 남주와 어린시절부터 친한 다른 반의 여자 아이와 만남
10. 이런 만남을 가지다 지나가던 여주를 보게 된 남주
11. 지나가는 여주를 부를려고 하자 옛 친구가 저 친구 어디서 많이 본거 같다고 의문을 던짐
12. 남주는 이번에 새로 전학을 온 친구라 그럴리가 없다고 말하며 이름을 말해주니 옛 친구는 이름이 다른 걸 알고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며 헤어짐
13. 다시 반으로 돌아와 그녀에게 흔하지 않은 이름을 갖고 있는 옛 친구의 이름을 말해주며 과거에 만난 적이 있는지 물어보자 살짝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만 고개를 휘 젓는 여주
14. 어느정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주와 남주는 집 방향이 같아 같이 종례 후 집에 가기 위해 반을 나선다.
15. 마침 옆 반에 옛 친구도 선생님의 종례를 마치고 교실 밖으로 나오던 중 주인공 일행과 마주치게 됨
16. 옛 친구는 남주를 보고 집에 같이 가자며 달려오지만 그 옆자리에 여주의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며 난 ???(옛 친구 이름)인데 너 혹시 ???(여주의 옛 이름)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함.
17. 여주는 놀라며 그 이름을 어찌 알았냐고 하며 본격적인 여주의 기억관련된 스토리 시작
18. 사실 여주는 중학교 시절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교통사고로 인해 여주는 고등학교 이전의 기억들이 전혀 없는 상태로 학교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다.
19. 유일하게 남은 것들은 자물쇠가 달린  
    자신이 적은 과거의 일기들과 사진뿐
20. 여주의 기억을 되 찾기 위해 여주와 옛 친구 그리고 주인공이 펼치는 이야기

(놀이공원, 과학실, 도서관, 불꽃놀이, 등산, 바닷가 등을 가며   
퀘스트를 완료하여 장소의 기억을 완료하면 어렸을 때 찍은 일기장에 내용과 사진이 보여지며 종료)

1. 플레이를 통해 쌓은 옛 친구나 여주의 호감도 중 더 높은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가게 되며 졸업식 날 고백을 하게 되며 엔딩으로 진행
2. 엔딩에서는 선택을 받은 캐릭터와 찍은 이후에도 둘or 셋이 데이트를 하며 보내며 찍은 사진들이 폴라로이드로 사진으로 화면을 채우며 엔딩